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영향요인 탐색을 위한 융합적 접근

박혜정¹, 이연규¹, 김미진^{2*}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nvergence Approach to Exploring Factors Affecting Teacher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ye Jung Park¹, Yeon Gyu Lee¹, Mi Jin Kim^{2*}

¹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eon Inst. of Science and Technolog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aejeon Inst.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재직 중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202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에 대한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영향요인은 교육경력, 직무성취도, 공감, 회복탄력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57.2%로 나타났다($F=45.848$, $p<.001$). 결론적으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회복탄력성($\beta=.480$)이 높을수록, 직무성취도($\beta=.286$)가 높을수록, 교육경력($\beta=.197$)이 많을수록, 공감($\beta=.141$)능력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해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회복탄력성, 직무성취도,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과정을 융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이 요구된다.

주제어 : 유아 교사, 교사 효능감, 회복탄력성, 공감, 직무성취도, 교육경력

Abstract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currently employed early childhood teachers in order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teacher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202 data were analyze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resilience, and teacher efficacy. As a result of the study, factors influencing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er efficacy were identified as educational experience, job achievement, empathy, and resilie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 was 57.2% ($F=45.848$, $p<.001$). In conclusion, the higher the resilience ($\beta=.480$), job achievement ($\beta=.286$), teaching experience ($\beta=.197$), and empathy ($\beta=.141$)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higher the teacher efficacy was.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a curriculum that combines regular and non-regular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resilience, job achievement, and empathy from the period as pre-service teachers are required to improve teacher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 Early Childhood Teacher, Teacher Efficacy, Resilience, Empathy, Job Achievement, Teaching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Mi Jin Kim(mjkim@dst.ac.kr)

Received October 8,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4,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유아교사의 업무는 수업을 기본으로 유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하다. 유아교사는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긴장하여야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아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수시로 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업무 속에서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교사의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유아와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일과를 함께 하기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교사로서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1] 유아교사가 지니는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역할수행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

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은 자신이 유아의 교육성과에 변화를 주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자아효능감은 특정 성과를 달성하는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믿음이다[3]. 교사가 지니는 자아효능감은 교사효능감이란 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목표설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4].

교사효능감은 교사 개인의 특성인 끈기, 책임감, 열정,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직의 구조와 분위기, 의사결정방식, 원장의 리더십, 근무만족도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5]. 교사효능감과 교사 역할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양질의 교육 환경과 성공적인 수업을 제공하여 유아의 성취와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교사 유아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이 유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 교육법을 시도하고 학습자를 지원하는 교실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7]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하루일과를 잘 운용하고, 동료교사 및 부모와의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업무와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다[8].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자아효능감은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 자아효능감은 감정도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직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 높은 이직률, 교사와 영유아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교육적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0]. 기관의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대인관계 문제는 교사효능감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11] 인간관계속에서 생기는 여러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12]. 유아교사가 지니는 공감은 긍정적 심리를 가지도록 하여 유아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유아를 교육하는데 집중하며 정서적으로 몰입하도록 도왔으며[13], 공감능력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가 지니는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14].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문제행동 지도전략을 사용하는 등 교사의 유능성을 향상시킨 것에 비추어 공감이 교사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사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인관계 문제는 대인접촉이 빈번하고 돌봄과 관련된 직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특히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공감능력은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환자의 회복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발달 시기상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를 돌보는 유아교사와 건강 약자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업무처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에서 공감능력은 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요소이다.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어려움을 이겨내는 다른 요소로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난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하는 힘을 의미한다[16].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이직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로 간호사의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17].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로 초기에는 주로 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정 환경상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 중심 연구가 진행되었다[18]. 교육분야에서 회복탄력성은 교사가 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서의 적응을 돕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19].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며[20]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사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유아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이 교사의 수업 운영 및 다양한 상황

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킨 것에 비추어 회복탄력성이 교사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확인하고 예비교사의 교사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감,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 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대전·세종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20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총 204명이 참여하였으나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기한 2부를 제외하고 최종 20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최소 표본크기는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 크기를 .15(중간크기), 유의수준 α .05, 검정력(power) .95, 예측인자를 연속형 독립변수 6개로 할 경우 146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11문항), 공감(30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 교사효능감(27문항)을 측정하는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공감

공감측정 도구는 Davis[22], Bryant[23]이 개발한 검사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된 도구로 김해진 등[24]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편향을 피하기 위해 역문항이 있어 이는 통계 처리시 값을 변환하였다. 김해진 등 [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외[25]가 개발한 YKRQ-27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편향을 피하기 위한 역문항은 통계 처리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0으로 확인되었다.

2.3.3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신정애[26]가 개발한 영유아 교사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의 합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96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5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로 인한 이득과 위험, 자발적 참여와 참여 중지 에 대한 선택권리, 통계 처리되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비밀보장 유지, 그리고 설문결과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25	49(24.3)	-
	26-30	68(33.7)	
	31-35	23(11.4)	
	36-40	24(11.9)	
	41-45	16(7.9)	
	≥46	22(10.9)	
Gender	Male	1(.5)	-
	Female	201(99.5)	
Marital Status	Single	130(64.4)	-
	Married	72(35.6)	
Education	Part time Teacher	7(3.5)	-
	College	114(56.4)	
	University	65(32.2)	
	Graduate School	16(7.9)	
Job Position	After-school Teacher and Full-day Kindergarten Teacher	20(9.9)	-
	Senior Teacher	14(6.9)	
	Assistant Teacher	21(10.4)	
	Teacher	140(69.3)	
	Deputy Director	7(3.5)	
Institutional Type	Public Kindergarten	11(5.4)	-
	Private Kindergarten	87(43.1)	
	National and Public Child Care Center	12(5.9)	
	Incorporated Child Care Center	42(20.8)	
	Private Child Care Center	50(24.8)	
Teaching Experience	≤10	183(90.6)	5.8(.308)
	11-20	26(8.4)	
	≥21	2(1)	
Working Hours	≤7	13(6.4)	9(.103)
	8-9	117(57.9)	
	≥10	72(35.6)	
Job Achievement	Very satisfied	45(22.3)	3.86(.059)
	Satisfied	94(46.5)	
	Moderate	54(26.7)	
	Unsatisfied	7(3.5)	
	Very dissatisfied	2(1.0)	
Satisfaction with Job	Very satisfied	57(28.2)	3.84(.069)
	Satisfied	77(38.1)	
	Moderate	51(25.2)	
	Unsatisfied	13(6.4)	
	Very dissatisfied	4(2.0)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Very satisfied	57(28.2)	3.77(.074)
	Satisfied	71(35.1)	
	Moderate	51(25.2)	
	Unsatisfied	17(8.4)	
	Very dissatisfied	6(3.0)	

2.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교사가 많았으며 연령은 26-30세 사이가 68명(33.7%), 25세 이하가 49명(24.3%)로 많았다. 결혼유무는 미혼자가 130명(64.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학사 114명(56.4%), 학사 65명(32.2%)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교육경력 10년 이하가 183(90.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경력 평균은 5.8년, 근무시간은 하루 8-9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17명(57.9%)로 가장 많았으며, 담임교사가 140명(69.3%)로 가장 많았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7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성취도는 '매우 만족한다' 45명(22.3%), 직업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57(28.2%),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57명(28.2%)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Level of Empathy, Resilience, Teacher Efficacy

Variables	Mean±Standardized Deviation		Range
	Total	Average Mean	
Empathy	116.32±.78	3.87±.02	2.9-4.8
Resilience	103.88±.89	3.84±.03	2.4-4.9
Teacher Efficacy	111.52±.99	4.13±.03	2.1-5.0

3.2 대상자의 공감,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수준

대상자 공감합의 평균은 116.32점(SD=.78), 회복탄력성합의 평균은 103.88(SD=.89), 교사효능감합의 평균은 111.52(SD=.99)였다. 주요 변수 문항 값의 평균은 공감 3.87(SD=.02), 회복탄력성 3.84(SD=.03), 교사효능감 4.13(SD=.03)로 교사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교사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교육경력($r=.165, p=.019$)으로 나타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만족도($r=.430, p<.001$), 근무환경만족도($r=.346, p<.001$), 직무성취도($r=.555, p<.001$)로 확인되어 교사효능감과 중간수준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감($r=.408, p<.001$), 회복탄력성($r=.652, p<.001$)은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4 대상자의 교사 효능감 영향 요인

대상자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교육경력, 직무성취도, 직업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 공감, 회복탄력성순으로 투입하여 다중

Table 3. Correlation Among Related Variables

(N=202)

Variables	Teaching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Job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Job Achievement	Empathy	Resilience	Teacher Efficacy
	r(p)	r(p)	r(p)	r(p)	r(p)	r(p)	r(p)
Teaching Experience	1						
Satisfaction with Job	.089(.206)	1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082(.244)	.648(<.001)	1				
Job Achievement	.072(.307)	.600(<.001)	.503(<.001)	1			
Empathy	-.041(.567)	.170(.015)	.142(.044)	.197(.005)	1		
Resilience	-.109(.123)	.351(<.001)	.228(.001)	.402(<.001)	.434(<.001)	1	
Teacher Efficacy	.165(.019)	.430(<.001)	.346(<.001)	.555(<.001)	.408(<.001)	.652(<.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eacher Efficacy

(N=202)

Independent Variables	Model					
	B	SE	β	t	p	VIF
Constant	9.202	7.562		1.217	.225	
Teaching Experience	.640	.153	.197	4.193	<.001	1.036
Job Achievement	4.850	1.034	.286	4.692	<.001	1.743
Satisfaction with Job	.287	.985	.020	.291	.771	2.146
Satisfaction with Working Environment	.603	.840	.044	.717	.474	1.795
Empathy	.180	.066	.141	2.748	.007	1.236
Resilience	.535	.062	.480	8.565	<.001	1.478
Statistic Results	R ² =.585, Adjusted R ² =.572, F=45.848, p<.001, Durbin-Watson=1.764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참고).

회귀분석결과 Durbin-Watson=1.764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독립변수간 자기상관이 없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식(F=45.848, p<.001)은 유의하였으며 통계결과 영향요인의 총 설명력은 57.2%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교육경력(t=4.193, p<.001), 직무성취도(t=4.692, p<.001), 공감(t=2.748, p=.007), 회복탄력성(t=8.565, p<.001)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직업만족도(t=.291, p=.771)와 근무환경만족도(t=.717, p=.474)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회복탄력성(β =.480)이 높을수록, 직무성취도(β =.286)가 높을수록, 교육경력(β =.197)이 많을수록, 공감(β =.141)능력이 높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40세 이하가 80%, 전문학사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59.9%, 90.6%가 10년 이하의 교육경력을 가졌다. 이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10시간 이상 근무자가 35.6%로 나타나 일반 근로자의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의 직무성취도는 49%, 직업만족도는 76.3%, 근무환경 만족도는 63.3%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다양한 역할, 과도한 업무량, 긴 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사효능감을 보이며 직무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이순자, 김진화[27]의 연구와 일치한다. 대상자의 공감 수준은 평균

3.87(SD=.02), 회복탄력성 수준은 3.84(SD=.03), 교사효능감은 4.13(SD=.03)으로 나타나 교사효능감, 공감, 회복탄력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력, 직무성취도, 직업만족도, 근무환경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교사의 경력과 회복탄력성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효능감이 다시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교사민감성에 간접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권정윤, 이미나, 정미라[28]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이들은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공감과 회복탄력성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공감과 회복탄력성 수준은 교사의 효능감과 관련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특수교사의 공감적 이해 수준이 교사효능감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서성덕[29]의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 대상의 교사효능감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교육경력과 직무성취도가, 주요 변인에서는 공감과 회복탄력성이 모두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영향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회복탄력성(β =.480)이 높을수록, 직무성취도(β =.286)가 높을수록, 교육경력(β =.197)이 많을수록, 공감(β =.141)능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복탄력성이 교사효능감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상·하 집단을 대상으로 교사의 역할갈등 및 수행과정을 연구한 권수현 외[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교사들은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의 교사들에 비해 역할 갈등을 적게 느낄 뿐 아니라 역할 갈등이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노수진, 이경님[30]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유아교사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안전관리, 행사 진행, 행정업무 등의 업무 수행과 동시에 학부모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직무의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업무 중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에[31]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업무 수행 중 역할 갈등을 적게 느껴 효율적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권수현 외[32]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성취도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직무성취도는 연구 참여자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자기보고식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 성취도를 높게 평가한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결국 제 3자에 의한 직무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직무성취도와 교사효능감 사이의 상관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경력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개인 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한석실, 임명희[33]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만 본 연구는 교사의 경력을 연속변수로 분석하였기에, 권정윤 외[28]의 연구에서처럼 경력에 따른 세분화된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복잡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경력 1년 미만의 교사가 경력교사에 비해 낮은 교수효능감으로 이어진다는 Wilhem, Dewhust-Savellis & Parker[34]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며, 낮은 경력의 생존기 교사가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경력교사보다 갈등이 높고, 이것이 이직으로 연결됨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교사의 경력과 교수효능감의 정적상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상관관계의 기운기가 연속적인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공감 수준이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짐을 보고한 박희숙[35], 우수경, 서윤희[36]의 연구를 지지하며,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혜진, 이수경[3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5. 결론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 변수는 교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성취도, 경력, 공감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효능감, 행복감, 직무만족도, 교사민감성, 회복탄력성 등의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필요충분조건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반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압축 후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극복하는 마음 근육의 단련 과정이며 업무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다. 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안의 수준을 낮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기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긍정 에너지이다. 따라서 교사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직교사뿐 아니라 예비교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회복탄력성은 고정적인 능력이 아니고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향상이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아교사의 대표적 이직 원인인 업무과중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상호간 긍정적 감정을 공유하며 업무에 몰입하도록 한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양성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교사의 업무를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학력이 전문학사 이하가 많고, 10년 이하의 경력 소지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력과 경력에 따른 표집의 한계가 있다. 유아교육 기관 교사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잦음에 따라 경력이 긴 교사의 비중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후속연구에서는 학력과 경력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보기 위한 체계적인 무선표집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S. N. Lee & Y. S. Lee. (2005). A Study of educare center's teachers on the efficacy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45-58.
- [2] A. N. Kim. (2014).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 early childhood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role performance and an educational program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4), 333-351.
- [3] A. Bandur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T. Urda & F. Pajares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 307-337). New York: W. H. Freeman.
- [4] A. Bandur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 *Educational Psychology*, 28(2), 117-148.
- [5] M.. Tschanner-Moran & A. W. Hoy. (2001).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7), 783-805.
- [6] E. K. Byun & K. O. Chang. (2015).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y-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982-3990.
- [7] S. Gibson. & M. H. Dembo.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4), 569-582.
- [8] S. Kim & G. R. Lee. (2011).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image and rol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10(1), 1-21.
- [9] M. Kang, M. Kwon & S. Youn. (2012). Self-efficacy,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otional labor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266-273.
- [10] S. M. Kwon. (201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kindergarten and preschool teachers on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5), 313-333.
- [11] H. R. Kim & S. Auh. (2017). The impa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terpersonal stress on teacher efficacy: A focus on mediation effects of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s*, 21(6), 77-103.
- [12] C. Zahn-Waxler & M. Radke-Yarrow. (1990). The origins of empathic concern. *Motivation and Emotion*, 14(2), 107-130.
- [13] Y. Lee & S. Kim. (2018). The impact of teachers' compas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hildren's rudeness and emotional involvement: Regulation effect of deep acting between compas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 43-67.
- [14] Y. S. Paik & B. J. Kang.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struction creativity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etic ability and guidance strategy for troubled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3(6), 213-235.
- [15] H. J. Kim & H. J. Choi. (2012). Emergency nurse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3), 320-328.
- [16] J. Y. Lee, S. J. Cho & H. Y. Min. (2012). The influence of the resili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Social support as a mediating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59-67.
- [17] D. Y. Park & H. S. You. (2020). Factors influencing role conflict and resilience of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uni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5(2), 51-60..
- [18] S. H. Kwon. (2015.) A Review of literature on early childhood teaches resil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10(2), 31-35.
- [19] B. L. Bobek. (2002). Teacher resiliency: A key to career longevity. *The Clearing House: A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75(4), 202-205.
- [20] S. H. Kwon & S. Y. Lee. (2011). Comparing kindergarten teachers' role conflict and its influence on performance in high and low resilience group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2), 311-331.
- [21] J. Tak & H. Kang. (2014).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5), 107-278.
- [22]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23] B. Bryant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24] H. J. Kim & M. S. Yi. (2015).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1(2), 237-245.
- [25] W. Y. Shin, M. G. Kim & J. H.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26] J. A. Shin.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teacher efficacy of early childhood educators*.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27] S. J. Lee & J. H. Kim. (2017). The effects of day care teacher's 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4(2), 49-73.
- [28] J. Y. Kwon, M. N. Lee & M. R. Chung.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years in field, teacher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sensitivity of infant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6(3), 293-312

- [29] S. D. Seo. (2008). *The Influences of degree of empath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eacher-efficacy and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es. KyungHee University.
- [30] S. J. Noh & K. N. Lee. (2015).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job stress, and 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ing on sensitivity of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3), 93-114.
- [31] E. H. Park & S. B. Jun. (2010). The investigation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that influence resilience in 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7(1), 253-275.
- [32] S. H. Kwon & S. Y. Lee. (2010).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7(2), 137-157.
- [33] S. S. Han & M. H. Lim. (2003). A Study on identifying of kindergarten teacher's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0(1), 207-240.
- [34] K. Wilhem, J. Dewhust-Savellis & G. Parker. (2000). Teacher's stress? An analysis of why teachers leave and why they stay. *Teacher and Teaching*, 6(3), 291-304.
- [35] H. S. Park. (2017). The effects of teachers' happiness and empathy on teacher-children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2(1), 117-133.
- [36] S. K. Woo & Y. H. Seo. (2016).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367-384.

박 혜 정(Hye Jung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2005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육과정 및 교수법 (유아교육학 전공)(철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심리, 인지발달
- E-Mail : parkhj@dst.ac.kr

이 연 규(Yeon Gyu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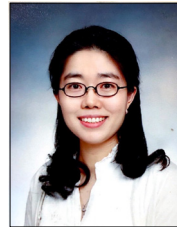
[정회원]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문학사)
- 1990년 5월 : Oklahoma City University 유아교육과(Med)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유아발달, 유아언어교육, 유아문학교육
- E-Mail : yglee@dst.ac.kr

김 미 진(Mi Ji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가족간호
- E-Mail : mjkim@dst.ac.kr